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육군병사를 중심으로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elf-Control of Army Soldiers

한영주, 하창순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Young-Joo Han(care08@naver.com), Chang-Soon Ha(changh@konyang.ac.kr)

요약

본 연구는 육군병사가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역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507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사들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은 부적상관을,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부모애착은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기통제력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보다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 중심어 : | 부모애착 | 자기통제력 | 공격성 | 자아존중감 | 육군병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elf-control of soldiers. A convenience sample of 507 soldiers was employed, the following conclusions obtained. Parent attach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control, agg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control and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control. On the other hand, parental attachment had a indirect influence on self-control which was mediates through aggression and self-esteem as well as direct influence on self-control,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much further aggression than self-esteem.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 implication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 keyword : | Parental Attachment | Self-control | Aggression | Self-esteem | Army Soldier |

1. 서론

오늘날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많은 부분은 자기통제력의 결핍과 관련이 있으며[1], 자기통제력은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예측요인이다[2]. 자기통제력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성향을 줄이고 그러한 성향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중단시키며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를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

접수일자 : 2016년 11월 10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06일
교신저자 : 하창순, e-mail : changh@konyang.ac.kr

의 내적인 반응들을 변화시키고 적응시키는 능력이다[3].

자기통제력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행동, 범죄, 정서문제, 학업부진, 인터넷중독, 충동성과 공격성 조절의 실패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낮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확인하고 있는데[4] 군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병사들은 발달단계상 대부분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며, 후기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되는 발달 단계로 심리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발달과업과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 입대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갖게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의 발달과업으로 지각되는 군복무는 각기 다른 형태로 적응과정을 갖게 될 것이고 병사들의 적응과정은 곧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는 입대 전의 생활사와 성격적 특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5].

현재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개성을 추구하는 세대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해 오면서 단체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육체적으로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6], 이들은 환경과 역할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일반 사회에서도 병사들의 군생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와 비행, 범죄유사행위를 넘어서 사회제도나 활동, 대인관계에서의 실패 등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시작했는데[7] 이에 비추어 볼 때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만들어 내는 결과들이 자기통제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 이론에서는 개인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있어 부모애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8]. 애착과 자기통제력의 관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는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사회적응이나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즉 안정된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작용을 하며 부모와의 애착이 결여된 자녀는 부모의 규범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기제를 갖지 못하게 되며, 부모가 관심이나 애정이 부족하여 자녀의 행동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녀의 부적응행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어떤 기제를 통해 부모애착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부모애착이 자기통제력에 주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내적작동모델로 기능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정성이 있어 이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을 매개하는 변인의 확인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담개입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변인을 다룬 메타분석을 살펴보면 개인심리 변인군 중에서 심리적 반발심,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이 자기통제력의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 자아존중감, 자아분화, 긍정정서 등은 자기통제력의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부모애착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통제력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만을 살펴보거나, 자기통제력이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끼쳐 발생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군복무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

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이 어떤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다중매개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중매개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변수들의 측정오류를 줄일 수 있고, 특정 매개효과와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적절한 분석전략이 된다는 Preacher와 Hayes의 제안(2008)[10]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부모애착, 공격성, 자아존중감이 병사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매개변인에 주목한 이유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군생활 적응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병사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동일한 정도로 적응에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심리내적인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자기통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인해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사들을 위한 상담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공격성,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자기통제력은 스스로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 충동이나 만족을 유보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 및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심리적 성향이다[11]. 이러한 자기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학업성취와 심리적 적응, 대인관계 기술을 보이고 폭식이나 알콜남용 등의 충동조절 문제를 더 적게 보인다[3].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범죄나 비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자기통제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부모가

자녀의 어린 시절에 자기통제력을 적절히 발달시키지 못하면 자녀들의 일생 동안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며 개인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있어 부모애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는 것으로[12],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는데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아동기나 청년기, 더 나아가 성인기 이후 전생애에 걸쳐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기통제력과 관련이 있게 된다[13].

애착과 자기통제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국외 연구에서 안정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높은 자기통제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13-15],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18].

공격성은 인류의 원초적인 본능이자 욕구로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 및 욕구 또는 정서상태라고 할 수 있다[19]. Dollard, Berkowitz 등(1939)에 의해 제시된 좌절-공격이론에 따르면 공격적인 사람들은 욕구충족이 요구될 때 환경적 방해를 받아 좌절이 생기면 공격성이 활성화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자기통제력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20]. 즉 욕구좌절을 당하게 되면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통제력의 약화로 연결되는 것인데, 갈등과 좌절을 야기하는 상황을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응적 대안보다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자기통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21].

한편,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사이의 영향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 두 변인간의 방향성 측면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즉 많은 연구에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다루고 있으며, 공격성이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이론을 밝힌 여러 학자 중 Logue(1995)는 자기통제력에 대해서 단기적 만족은 지연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개념이 충동성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충동성과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이 충동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고[22],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적인 아동은 좌절상황에서 각성수준이 높고 반응시간이 빠르며 행동지향적인 특성, 즉 충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3].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은 자기통제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해 Brown과 Dutton(1991)은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24]. 즉 자아존중감이 어린 시절 부모 및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이것이 자신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기존재에 대한 가치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보다 적응력이 높고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신지현(200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기통제력도 높으며, 자아존중감은 충동억제나 즉각적인 만족의 지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25]. 윤명숙(2011) 등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위한 중요한 사회심리적 자원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고[26],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김준영(201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통제력도 높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27].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OO도 OO사단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병사들이다.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응답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43부를 제외한 507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로 선정

된 총 507명의 계급별 분포는 이병 30명(5.9%), 일병 206명(40.6%), 상병 207명(40.8%), 병장 64명(12.6%)이다.

2. 측정도구

2.1 부모애착 척도

병사들의 부모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 개정판(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척도에서 또래애착을 제외하고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IPPA-R은 상호신뢰감, 의사소통의 질, 소외감이라는 세 가지 하위영역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척도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5로 나타났다.

2.2 공격성 척도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Buss-Durkee가 제작한 BDHI(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노안영(1983)이 한국어로 번안한 검사지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검사지는 7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항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응답의 일관성과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문항을 채택하여 재수정한 검사지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고(정동화, 1996; 신영재, 1999; 황정희, 2002) 본 연구에서는 한세리(2007)가 재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는 신체적 공격성, 적의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등의 4개의 하위영역에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방식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2.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전병제(1974)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개념의 특정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고 있다. 긍정적 문항(1,2,4,6,7)과, 부정적 문항(3,5,8,9,10)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방식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2.4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력 개념을 기초로 Grasmick, Tittle, Bursik 및 Arnerklev(1993)이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하창순(2004)이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로 타당화 작업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험추구, 단순과제, 신체활동, 자기중심, 화 기질, 충동성 등 6개의 하위영역에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는데 전체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시 척도간 해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역채점을 하여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Hayes교수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일반적 경향성과 변량의 정상성(normal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변수들인 부모애착,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SPSS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Sobel Test를 사용하였으나 이 검증방법은 낮은 통계검정력과 표준오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hrout &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먼저 507명의 연구표본으로부터 1,000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부트스트랩 표본을 만든다. 그런 후 이 표본으로 1,000번의 수행을 통해 통계치를 계산한 후 95% 신뢰구간의 상하한선에서 최대효과를 나타내는 추정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는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들의 정상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왜도는 .06~.80으로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는 .11~.72로 7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Lei와 Lomax(2005)[29]가 제안한 기본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든 변인들이 유의수준 .01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부모애착과 자아존중

감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모애착과 공격성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은 자기통제력과 부적상관을, 자아존중감은 자기통제력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공격성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			
자기통제력	.347**	-		
공격성	-.336**	-.559**	-	
자아존중감	.549**	.330**	-.307**	-
M	4.02	3.52	2.30	3.36
SD	.58	.51	.69	.55
왜도	-.39	-.06	.42	-.80
첨도	-.38	-.11	.18	.72

**p<.01

2.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다중매개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애착	공격성	자기통제력	.10***	.14***	.30***
				(-.39)×(-.35)	
자아존중감	공격성	자기통제력	.06***	.11**	.17**
				(.5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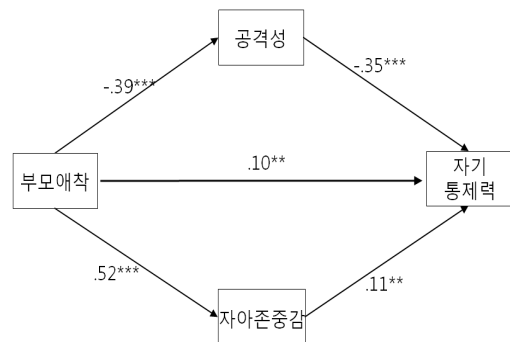
***p<.001

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모애착은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이 자기통제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효과분해하여 보면, 부모애착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는 (.39)×(.35)=.14이며,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

로 하여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는 (.52)×(.11)=.0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간접효과의 유의한 차이는 독립변인인 부모애착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보다 공격성을 경유해서 종속변인인 자기통제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두 매개변인의 효과 차이(.06-.14 =-.08)는 90% 신뢰구간(-1.55~.02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효과에 대해서 간접효과가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효과에 대한 간접효과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계산 공식은 매개변인 MI = MI간접효과 / (MI간접효과 + 직접효과)이다. 총효과에 대한 공격성의 간접효과의 비율은 58.3%,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비율은 37.5%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58.1% 설명되고 자아존중감이 37.5% 설명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애착이 두 개의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 변인이 자아존중감 변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사이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부모애착에서 자존감으로 가는 경로(β=.52, p<.001)와 자존감에서 자기통제력으로 가는 경로((β=.11, p<.01), 부모애착에서 자기통제력으로 가는 경로(β=.10, p<.01)로 나타났다. 한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부모애착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β=-.39, p<.001)와 공격성에서 자기통제력으로 가는 경로((β=-.35, p<.001)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다중매개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p<.01, *p<.001

그림 1. 다중매개효과 모형분석

한편, 변인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만약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절차에서 1,000개의 표본은 원래의 표본으로부터 무작위 추출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무작위 표본을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검증 결과

독립	경로		간접효과	
	매개	종속	β	(95% 신뢰구간)
부모애착	→ 공격성	→ 자기통제력	.14***	.10 ~.18
	→ 자존감		.06***	.01 ~.09

*** $p <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육군병사가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공격성,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부모애착, 종속변인으로 자기통제력, 매개변인으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여 이들 간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는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공격성, 자아존중감의 각 변인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정적 상관관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이 증가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진다는 홍영수와 오선영의 연구[30], 부모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형성이 증진된다는 문영숙과 한수정의 연구결과[31]와 일치한다. 이는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서는 부모나 주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애착이 밀바탕이 되어 자녀의 행위에 대한 감시, 자녀의 일탈행위에 대한 인지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Gottfredson과 Hirschild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자기통제력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공격성과 관련한 개인의 중요한 내적변인으로 서로 부적상관이 있음을 밝힌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성연의 연구[3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송진영의 연구[33]에서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이 부적상관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충동성과 공격성이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는 심응철[3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다보면 자신의 공격성을 의식하지 못한채 습관적으로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통제력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격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파괴적·폭력적인 행동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통제하고 타인과 상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격성은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기통제력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병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일수록 높은 자기통제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35][36]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가치 있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는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부모애착은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기통제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통제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연구[37],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3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자

자아존중감이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39], 자아존중감이 자기통제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36]와 일치한다. 또한 Young(1996)은 충동성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충동성을 낮게 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40]와 같은 맥락이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이는 높은 자기통제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 공격성, 자아존중감 등 중요한 변인을 확인하여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개인내적 특성으로서의 자기통제력의 이해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병사들의 자기통제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가정과 개인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효과분해를 통해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 변인보다 공격성 변인을 경유하여 자기통제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향후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한 채 군에 입대하여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의 경우 공격성을 살펴보고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상담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만을 매개 변인으로 활용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력을 보이는 다른 매개 변인의 탐색이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킨 구조적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설문 참여자에 따라 자신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고의적으로 왜곡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면담, 동료나 가족의 평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

자는 일부지역에 복무하는 병사들에 국한되어 지역에 따른 일반화와 집단의 특수성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 혹은 부대유형별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R. F. Baumeister, T. F. Heatherton, and D. M. Tice,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Academic Press, 1994.
- [2] R. F. Baumeister and J. Tirney, *Willpower: Rediscovering the Greatest Human Strength*, The Penguin Press, 2011.
- [3] J. P. Tangney, R. F. Baumeister, and A. L. Boone,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Vol.72, No.2, pp.271-324, 2004.
- [4] 이성식,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 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159-181, 2007.
- [5] 김은미, *병사들의 군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입대전 생활사와 성격특성탐색*,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6] 김연이, *군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7] 박영실, *청소년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기회요인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8] Y. G. Nie, J. B. Li, and A. T. Vazsonyi, "Self-control mediates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Chinese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96, pp.36-39, 2016.
- [9] 김세경, *자기통제력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메타분*

- 석,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10] K. J. Preacher and A. F. Hayes, "A 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0, No.3, pp.879-891, 2008.
- [11] M. R. Gottfredson and T. Hirschi,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 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12] J. Bowlby, *A secure base: Parental-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1988.
- [13] J. B. Lie, E. Delvecchio, A. Lis, Y. G. Nie, and D. Di Riso, "Parental attachment, self-control and depresssive symptoms in Chinese and Italian adolescents: Test of mediation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Vol.43, pp.159-170, 2015.
- [14] A. T. Vazsonyi and L. M. Belliston, "The family → low self-control → deviance : A cross-cultural and cross-national test of self-control theor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4, pp.505-530, 2007.
- [15] D. V. Blalock, A. T. Franzese, K. A. Machell, and T. J. Strauman, "Attachment style and self-regulation: How our patterns in relationships reflect broader motivational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efferences, Vol.87, pp.90-98, 2015.
- [16] 목점선,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애착 학교생활 적응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17] 이윤미,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8] 김경숙, *중학생의 또래동조성 및 애착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19] 김소연, *미술매체를 이용한 집단상담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0] Z. Winstok, "From self-control capabilities and the need to control oteher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32, No.3, pp.455-466, 2009.
- [21] 김선영, 김정희, 이경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5권, 제3호, 2004.
- [22] 조은경,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pp.125-178, 1997.
- [23] 정태연, 윤진, "충동성과 공격성이 좌절상황에서의 사회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제1호, pp.29-40, 1992.
- [24] 김진아, *자존감과 기분통제가 자기조절의 실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5] 신지현, *저소득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과 환경변인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26] 윤명숙, 최정민,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pp.55-78, 2011.
- [27] 김준영, "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와 자기통제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40권, pp.229-253, 2012.
- [28] D. P. MacKinnon, C. M. Lockwood, J. M. Hoffman, S. G. West, and V. Sheets,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No.7, pp.83-104, 2002.
- [29] M. Lei and R. G. Lomax,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12, No.1, pp.1-27, 2005
- [30] 홍영수, 오선영,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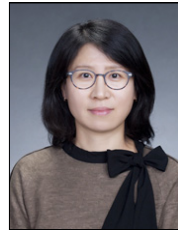
호, pp.319-336, 2010.

- [31] 문영숙, 한수정, “중학생의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302-310, 2009.
- [32] 주성연,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자기통제력, 공격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3] 송진영,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7호, 2016.
- [34] 심용철,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발달심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4-34, 1999.
- [35] 변경보,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6] 도금혜, 이지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공격성 간의 관계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pp.59-69, 2011.
- [37] 강귀애,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및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38] 최해림, “부모애착, 자동적사고, 성역할 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pp.599-616, 2005.
- [39] 정병삼, “부모-자녀 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 pp.5-30, 2010.
- [40] 이경님,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8호, pp.191-206, 2002.

저 자 소개

한 영 주(Young-Joo Han)

정회원



- 2010년 : 건양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5년 : 건양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박사수료)
- 2011년 ~ 현재 :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사

<관심분야> : 교정상담, 군상담, 가족상담

하 창 순(Chang-Soon Ha)

정회원



- 2004년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6년 :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장
- 1998년 ~ 현재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정상담, 진로상담, 이상심리